

꿈꾸는 어와나

이삭교회 손보미, 손준영

이번에 꿈꾸는 어와나에서 소개할 어린이는 이삭교회(담임목사 : 박한용 목사) 어와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보미, 손준영 어린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손보미, 손준영 어린이는 언제나 성실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삭교회 어와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이랍니다.

Q :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삭교회에 다니는 4학년 손보미, 손준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분차이로 나와서 보미가 누나이지만 저희는 그냥 다정한 친구처럼 지내요. 준영이는 처음부터 게임을 아주 좋아했고 보미는 게임을 무서워했지만 요즘은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찬양대와 예배 찬양팀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Q : 어와나를 언제 하게 되었으며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2학년 여름 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고 단복을 입고 게임하는 모습이 좋아보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어와나를 통해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게 되었고 아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엄마 아빠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촌 동생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아주 기쁩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으실 것이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Q : 어와나에서 재미있고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 성경구절을 외울 때는 힘도 들지만 말씀이 점점 즐겁게 느껴지고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서로 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왠지 신나고 짜릿하고 단복을 입고 하니깐 더 좋습니다.

Q : 자기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 준영이는 박지성 같은 멋진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고 보미는 요리사가 되어서, 요리와 축구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Dreaming Awana

This time we introduce Bo-mi Son and Joon-young Son in Isaac Church Awana.

Bo-mi and Joon-young, fraternal twins, are very nice clubbers doing their best all the time in Issac Church Awana.

Q : Introduce yourself please.

A : Hello everyone! We're Bo-mi Son and Joon-young Son, fourth grader. We are like friends even if Bo-mi was my elder sister, born 1 minute earlier than I. Joon-young likes games very much. Bo-mi didn't like games but now came to enjoy it. We are serving in a choir and worship praising.

Q : When did you join in Awana? What made you join it?

A : We came to church to join the summer bible camp in second year for the first time. Then we decided to join Awana to see clubbers play games in uniforms.

Q : How were you changed through Awana?

A : We met the Lord memorizing the Word of God. We also tell the story of Jesus to our parents(they're not Christian). We were very happy our cousins started to attend church. We're praying for our parents believing in God someday.

Q : What do you think is interesting in Awana ?

A : At first, I thought memorizing the Word was a little difficult. But now I found it interesting. I also think it wonderful to cooperate with clubbers through playing games. Playing games in uniforms makes me feel excited.

Q : Can you tell us your dream?

A : Joon-young wants to be soccer player like Ji-seong Park and Bo-mi to be nice cook so that they can evangelize to the world through their job, soccer and cooking.

